르 뽀 ●

龜尾工業団地 의료보험조합

金龍洙 대표이사를 찾아서

9월 초순의 햇살은 마냥 따갑다. 아직도 늦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9월 3일 한낮. 새로운 시가지 계획으로 바둑판처럼 잘 짜여진 질서 정연한 구미 공단에 도착했다. 근대화된 공업도시로서 최첨단기술을 자랑하는 구미 공단은 한국의 공업단면을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듯해서 기자의 마음을 한껏 흐뭇하게 해 준다.

경북지부에서는 마침 이곳 구미공단에 건강검사 통보물과 대상기관과의 협의건이 있다면서 金忠默 사무국장, 李会鳳서무과장, 沈宇洙검사소장과 같이 대거 출동을 하기로 했다.

李과장과 沈소장은 오너드라이버로서 1人三役을 한다고 은근히 자랑이다. 이날도 李과장이 직접 차를 몰고 구미를 찾은 것이다. 바쁜 일손엔 제격인듯.

우리도 하루 빨리 운전을 배워 차만 있으면 누구나 모는 식의 기동성이 아쉽

다.

× × ×

구미공단 의료보험조합 사무실을 찾은 것이 오전 11시경—. 공단의 중심 시가지인 중소기업은행 3층에 자리잡고 있는 조합 사무실은 한마디로 활기에 차 있었다. 수십명 직원의 눈동자는 활기에 차있었고 날카로우면서도 서민적인 金龍洙 대표이사와 金相銀 총무과장이 우리 一行을 반가히 맞아 준다.

훈훈하면서도 체계있는 분위기—. 이것이 이곳 조합의 분위기라고 첫인상을 느꼈다. 더구나 金龍洙대표이사와 金志默국장과는 과거 도청 재직시설부터 같은 동료로서도 막역한 사이—.

역시 분위기가 한결 부드럽고 협조무-드가 대단하다.

기자에게 하나 하나를 설명하는 金대표이사는 과거 구미시 副市長의 관록으로 핵심하나 하나를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 × ×

구미공단 의료보험조합은 77년 6월에 설립되어 구미시·김천시와 선산군 등 2市 6개郡 712,000명을 관장하는 조합이다.

경북의 30개 시군중 가장 핵심이 되는 시군을 관장하고 있는 조합이기도 하다.

사업장 363개소에 피보험자 3만 4천 6백여명, 피부양자 4만 3천 5백여명, 부양율 1:1.12이고 보험료율이 법정최하한선인 1000분의 30이다.

공단의보 간부회의

공단의보 직원회의

보험담당자 실무교육

이곳의 특색은 첫째 無公害 단지라는 점이다. 수공업, 전자, 섬유업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대표적인 무공해단지로 손꼽히고 있었다.

둘째 여성피보험자가 전피보험자의 60%이며 이직율이 많아 업무량이 많은편이며 대기업체는 系列共同조합에 가입되어 있어(10여개 사업장) 군소 기업만을 관장하고 있었다.

이런 점들이 다른 조합과 조금 틀린 것

이라 할까—.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려 잘 운영이 되는 것은 金대표이사와 전직원의 일치단결된 사업추진 결과이리라—.

金龍洙대표이사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우리 工団은 内陸최대의 공업단지입니다. 그러므로 他의 모범이 되어야 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성인병검진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현대병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성인병은 꼭 퇴치되어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우선 지난 5월 7일 구미시장과 조합대표이사 共同으로 連名협조공문을 산하 전 사업장에 발송해서 종업원 건강검사를 독려 실시했지요. 그리하여 市조합원 전체가 참여, 1385명의 건강검사를 이미 끝마쳤읍니다.

내역을 보면 시청직원 200명, 금성전기 및 금성정밀 650명, 동국 방직 240명, 오리온 전기 60명 공단 조합 및 각사업장 275명 등 입니다.

기생충검사도 이미 37,000명중 7월말 현재 20,451명을 완료, 56% 실적입니다. 하하하…….』

힘주어 이야기하는 金대표이사는 보건예방 사업만은 다른 조합에 비해 한치도 뒤질 수 없다는 신념을 강조하기도 한다.

의료보험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도 다양해서 82년에 28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4,890명을 교육시켰고, 83년에는 135개 사업장, 21,073명을 교육 시켜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 기타 자랑거리나 고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어느 조합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부당급여방지가 제일 고민입니다. 7월달에는 방지 및 색출 작업의 일환으로 캠페인까지 벌여 8월말 현재 332 件에 5,245,719원의 부당급여를 적발한 적도 있읍니다. 3회에 걸쳐 공이 있는 직원 11명을 시상도 했지요. 요는 요양기관과의 유대강화가 한몫을 크게 합니다. 지금까지 8개시군 96개 기관을 방문, 간담회 개최, 요양기관 방문, 입원환자방문, 진료비 청구서 접수업무대행 등을 하였읍니다.

또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순회 교육도 실시하며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을 인쇄하여 배부도 하고 있읍니다.』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는 金대표이사의 말씀에서 名将밑에 弱卒은 없겠구나를 느끼면서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工団의료보험조합은 最強이구나를 기자는 느끼고 있었다.

◎… 金龍洙대표이사는 慶北道 法務담당관, 경북 지방공무원 교수부장, 구미시 副市長을 거쳐 명예퇴직, 현재에 이름.

夫人 鄭順正여사와의 사이에 4남매. 장남은 대구 金柱孝이비인후과 원장인 전문의이다.

취미로는 등산, 독서, 명상.